

예배 WORSHIP

March 3, 2019 11:30 am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주일예배

사역과 행사 안내

하나님 앞으로

찬양과 경배 (찬양팀과 함께)

예배기도 / 정홍렬 목사

찬양 /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흥현근/정임 집사

주님 가르치신 기도

말씀과 결단

성경말씀

고린도전서 4:17-21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

말씀선포 / 김성배 목사

결단의 찬송

찬송 208장 / 내 주의 나라와

(통일찬송 246장)

헌신과 나눔

봉헌 / 유덕하 집사, 죄선윤 집사

*봉헌찬송 / 나의 생명 드리니 - 4절

삶과 세상으로

*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 죽도 / 김성배 목사

〈*표는 모두 일어 섭니다〉

예배시간 10분전 휴대전화 점검과 묵상으로 준비합시다.

진정한 예배는 교회문을 낙서는 순간부터 시작 됩니다.

금요 찬양예배

8:00 pm

기도 : 구민집사

말씀 : 김성배 목사 / 출애굽기 7:14-25

복있고 지혜로운 사람은?

코스타리카 박윤숙 선교사

선교소식

1월 5일부터 시작한 12주 미니 예수제자 훈련과정이 20여명의 청년들이 참석하여 진행 중입니다. 이번 주는 YWAM 산호세 베이스 DTS 팀과 함께 수도 산호세로 나가 길에서 전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대부분이 처음으로 전도를 경험하게 되는데 두려움이 아닌 기쁨과 감사로 나눔의 특권을 나누기를 기도합니다. 3월 30일 수료식이 있습니다.



코스타리카 현지 대학사역 명칭이 'Vida U Costa Rica'로 정해졌습니다. 현재는 코스타리카 공립대학 TEC에서 'Vida TEC'로 먼저 시작했고 다른 대학들도 함께 이 운동에 동참하길 소망합니다. 코스타리카 대학들은 사회에 기여 할 수 있는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으나 재만남도 또 믿는 학생들의 헌신과 위탁도 쉽지 않습니다. U. Lacit 대학에서 먼저 시작했는데 여전히 학생 리더들과의 만남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들을 훈련하고 동원하기 위해서는 이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립대학 사역전략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도미니카 공화국 YWAM 비자메자 DTS 강의, 시너어 선교세미나리를 위한 통역
(기간 : 1/24 - 2/4)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되게 하는 삶을 위해서 / 동역할 전임 사역자를 보내주 시도록 / 진행되는 사역과 세미나의 실제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 / 제 영육간의 건강과

개목과 겸손한 삶을 위해서

한 주간의 기도

“나의 슬픔에만 길이 빠져 이웃을 향한 용서와 델을 배우는데 인색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나의 어리석음을 통해 놓치지 않게 하소서. 모든 일상의 어려움에 좌절하지 않고 당대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나의 상황과 감정을 극복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소서.”

교회를 섬기는 분들

LEAD PASTOR 김성배 목사

WORSHIP LEADER 박진성 집사

MISSION PASTOR 정홍렬 목사

CHILDREN'S MINISTER 고순제 전도사
장영현 전도사

YOUTH MINISTER SAGAR 전도사



누가복음 6:36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아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교회와 사역

우리는 어떤 교회를 지향하는가? 혹시 나도 모르게 교회의 외형적 성장에 대한 압박감 혹은 실패감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작으면서도 교회다울 수 있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려는 고민의 일환으로 앞으로 칼 베이더스,『작고 강한 교회』(생명의 말씀사, 2018)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한때 나의 교회는 3.4년 새 교인이 400명까지 빠르게 성장했다. 그런데 그 후부터 급격한 교인 수 급감과 함께 나는 영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약하고 불행했다.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나의 역할이 목회자와 목사에서 시스템 관리를 위한 조정자와 관리자로 변해 영혼이 메마르게 만드는 일에 시간을 허비했던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치유되면서 나는 작은 교회에 필요한 세 가지 중요한 핵심 원리를 발견했다.

1. **커지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건강하지 못한 작은 교회가 성장하면 건강하지 못한 큰 교회가 된다. 또한, 몇몇 놀라운 성공담에 매료돼 그런 방법을 자신의 교회에 적용했다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관계가 무너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교인 수를 늘리는 것이 계획도, 목적도 아니다. 대신 '지금의 규모로 무슨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교회 건물이 없는 다른 교회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직면한 상황을 문제가 아닌, 기회 곧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사역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2. **양적 성장은 필연적 결과가 아니다.**

- 1) 큰 교회로 성장하는 것은 성경의 명령이 아니며 흔하지도 필연적 이지도 않다. 대신 성경은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에 회개하라, 인내하라, 강해지라고 당부한다. 제사를 양육하라고 말씀한다. 성장이 건물의 크기나 교인 수에만 초점이 맞춰지면 안 되는 이유이다.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가 양적 성장을 추구 하는 대신 예배, 기도, 복음 전도, 가르침, 사랑에 우선 순위를 둔 것을 배워야 한다. 그들은 이런 원리를 따르는 데 집중했다. 교회 성장은 우리가 주관하는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이다.
- 2) 다른 교회를 모방하려고 하지 말자. 대신 교인 수를 늘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나은 교회가 되기 위해 계속 배우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노력해야 한다.
- 3) 건강한 교회를 위한 목록을 잘 수행해야 한다.

▶ 예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라
▶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제자로 삼아라
이 원리들은 예수님과 성경에 복종하기만 하면 이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큰 교회가 될 수 있는 요건들(예컨대, 위치, 건물 확보, 다양한 부서, 부유한 관대한 교인들 등)은 자동으로 이행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교인 수가 쉽게 늘지 않아도 절망감에 놀리지 않고 강하고 성숙한 목회자와 리더가 돼야 한다.

교회 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꾸자. 작은 교회의 한계를 빌미로 안주해서는 안 된다. 도전을 창의적인 발전의 자극제로 삼아야 한다. 나는 교회 성장이라는 용어 대신 '효과적인 사역을 위한 능력을 키우는데 노력한다.'고 재정의하고자 한다.

▶ 크고 요란한 방식이 아니라, 작고 긴밀한 방식으로 사역해야 한다. 잘 할 수 있는 몇 가지 일을 함으로써 소명의 의무를 단순화시켜라.
▶ 사람들이 배척당한다는 느끼지 않게 하고, 바리새인 같은 태도나 배타적 문화가 있어서는 않된다.
▶ 지역 사회의 발전에 뒤떨어지면 안 되고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이용해 영향력을 발휘해라.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활영과 섬김의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활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죽복합니다!

교제의 식탁 예배후 주일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역 / 행사

3월은 "한신의 달"입니다.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며, 하나님께 주실 축복을 바라보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전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됩니다.

1. 금주는 만남과 나눔의 주간입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말씀과 기도로 축복하며 하나님 나라를 누립시다.
 2. 팀사역 세미나: 오늘부터 12주과정으로 시작됩니다. (인도: 김윤경 사모)
 3. 3월 6일(수)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4. WOW 모임: 3월 2일(토)부터 시작됐습니다.
 5. 교회와 성도,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 기도합시다. 노환과 지병으로 투병중인 부모님과 가족을 위해 기도해주시십시오.
 6. 다음 주일(3/10)부터 Daylight Saving Time이 시작됩니다. 새벽 1시를 2시로 바꿉니다.
 7. 신년 심방 원하는 심방 날짜를 교우사역위원회에 알려주세요.
 8. 선교사 목사 부부 초청 찬양집회와 여성 회복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5/17-19 기간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9. 유초등부 교육전도사/교사 청빙과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 ★ 교우 동정 / 구은강 집사 - 가족 건강을 위해 한국 방문 중
장영현전도사, 장경미사모 - 가족여행
- ★ 이달의 생일 축하 / 김성배(3.2) 김윤경(3.11) 홍은영(3.19)
예배와 양육, 말씀과 기도, 교제와 나눔, 세상과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축복된 교회,
건강하게 성장하는 섬김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 도 제 목

1.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목회자들의 강건함과 사역을 위해
2. 박진성 집사의 완전한 회복과 최윤정 학생(눈)의 빠른 치유를 위해
3.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정홍렬 목사가 건강(신장기능)을 유지하도록
4. 교우들의 사업이 믿음 안에 청지기의 사명으로 운영, 발전하도록
5. 좋은 English Ministry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보내 주시도록
6. 주중 성경연구(소선지서/에스라/느헤미야/부흥강의들)를 위해

| 예 배 섬 김 이 | 3/3 | 3/10 | 3/17 | 3/24 |
|-----------------------|-------------|-------|-------------|--------|
| | 정홍렬목사 | 구은강집사 | 최내권집사 | 장영현전도사 |
| 금요예배기도 | 3/8 | 3/15 | 3/22 | 3/29 |
| | 구민집사 | 김훈태집사 | 구은강집사 | 박진성집사 |
| 주일현금위원 | 3/3 | 3/10 | 3/17 | 3/24 |
| | 유덕하집사/최선운집사 | | 홍현근집사/구은강집사 | |
| 주일안내위원 | | 3월 | | |
| | | 김훈태집사 | | |

말씀노트

말씀노트 Sermon Note

〈지난주일 말씀요약〉 나의 신앙과 인생의 발자취는? / 고린도전서 4:14-16

바울은 참 좋은 믿음의 아버지였다. 복음 안에서 낳은 성도를 끝까지 보살폈고, 최선을 다해 영적 양식을 먹였다. 아버지라는 존재는 가장 가까운 인생 선배이며, 바로 눈앞에 보이는 신앙 선배이다. 선배가 만들어 둔 커다란 발자국의 흔적을 따라 걸으면 쉽고,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한다. 아비의 마음으로 살면, 가정과 직장, 교회와 사회가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가 된다. 예수님이 피로 하나가 된 가족 공동체를 위해, 우리가 자원하여 앞에 나서서 길을 닦고, 뒤를 따라 오라고 말하자.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 / 고린도전서 4:17-21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질을 놓치고, 말 때문에 시험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십니까?

죽음에 대한 승리, 죄의 용서,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체험하며 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말씀요약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 / 고린도전서 4:17-21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 능력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고 강조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고린도교회 성도는 말 때문에 시험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말은 그저 수단이지 본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에 필요 이상의 의미를 두다보니 문제가 생기고 시험에 빠진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고린도의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나라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들을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여기에 사람의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감히 할가할부하는 토론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 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공허한 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찾아 나온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문제를 해결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여 주신 겁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는 능력, 부활의 능력, 영생의 능력, 즉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제자들에게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제자들이 체험하고 전하였던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2천년 교회 역사 내내 전해졌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 능력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 죽음에 대한 승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체험한 이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고, 우리에게도 부활이 약속 되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더 이상 우리의 적도 아니고 끝도 아닙니다. 그저 새로운 시작일 뿐입니다. 둘째, 죄 용서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이상 그 어떤 죄책감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완전한 용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셋째,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 나라처럼 통치권자와 시민이 가까운 나라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과 이야기하며 우리의 사랑과 감사를 고백할 수도 있고 우리의 아픔과 필요를 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들고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부활과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용서받았음을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고 해결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체험하며 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말씀적용과 실천노트

Application Note



기념, 회복, 나눔

섬김의 교회
church of servants

섬기는 목회자 : 김성배 목사
847-691-7846 / www.churchofservant.com
600 Deerfield Road, Deerfield, Illinois 60015

“네 영혼이 잘 됨 같아 내가 범사에 잘되고 기쁜게 기쁠 줄 알구나.”

March 3, 2019

섬김의 교회는...

- ▶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교회의 사람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 ▶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쉬지 않고 성장합니다.
- ▶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교회와 가정, 개인의 생활을 소망합니다.
- ▶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역과 삶의 영역에서 세웁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주 일 예배 / LORD'S DAY WORSHIP : SUNDAY 11:30 AM

주 일 학교 / SUNDAY SCHOOL : SUNDAY 11:00 AM

생명의 삶 나눔 / QT SHARING : SUNDAY 10:15 AM

금요찬양예배 / FRIDAY SERVICES : FRIDAY 8:00 PM

새벽경건회 / EARLY MORNING DEVOTIONS : TUESDAY~FRIDAY 6:00 AM
SATURDAY 7:00 AM

WOW / WOMEN OF WORSHIP : SATURDAY 11:00 AM

성경공부 / BIBLE STUDIES : SUNDAY 1:30 PM
WEDNESDAY 7:00 PM

일대일 제자훈련 / DISCIPLESHIP CLASSES : WEDNESDAY 7:30 PM

2019년 3월 3일

5-9호

헌신의 달
만남과 나눔의 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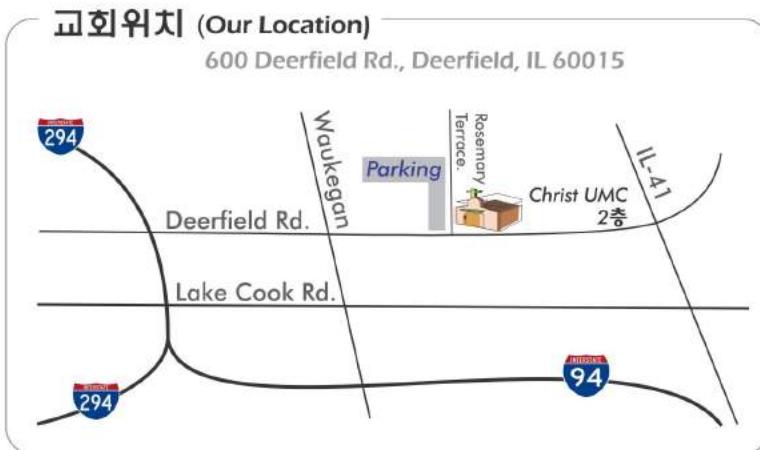
꿈이 있는 교회
섬김이 있는 교회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별 4:13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14-15



www.churchofservant.com